



[IDF뉴스] IDF,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 세계 학교우유 정보 원스톱 제공 등 사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향상



IDF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대적인 홈페이지 개편 소식을 알렸다.

특히 이번 신규 홈페이지의 핵심은 ‘세계 학교우유 정보 허브’로 세계 각국의 학교우유 공급 사례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체계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건강한 식단에서의 우유와 유제품의 역할’ 등 학교우유와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최적의 접근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IDF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접속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홈페이지를 바꿔주는 반응형 웹사이트를 선보이고, IDF가 설립된 1903년부터 현재까지 IDF의 여정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이 추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신 트렌드에 맞춰 실시간 검색어 기능은 물론 출판물, 뉴스 및 행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주소창에 fil-idf.org를 입력하거나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을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출처 : IDF 본부, 4월 28일 >

[산업동향] 美 의료진, 식생활지침의 유제품 섭취 권고에 반발 소송 제기

- 농무부,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 아니라는 점 강조



지난해 말 발표된 2020-2025년 미국식생활지침에서 우유 및 유제품이 건강식품으로 인정받으며 하루 3번 섭취가 권고된 가운데, 일부 의료진이 이에 반발하며 농무부(USD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한 의료진은 현재 미국인의 4분의 1이 유당불내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농무부가 미국인의 건강보다는 유제품 산업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고발했다. 또한, 젖소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며 식생활 지침에 유제품 섭취를 제한하거나 하루 2회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무부는 대변인을 통해 식생활지침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유제품을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려해 그들의 선호도에 따라 대체식품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출처 : washingtonpost.com, 4월 29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